학술분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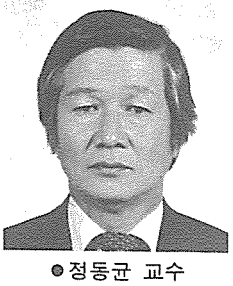
▲대한치과보철학회 '90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장면

◎ 치협학술대상에 丁東均교수, 신인상에 金聖祚氏 각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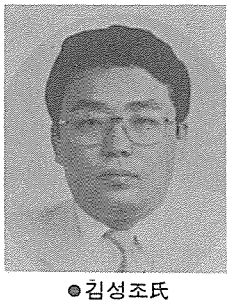
금년도 제17회 협회대상학술상은 丁東均교수(서울치대 치과약리학교실)가 수상하게 됐다.

齒協은 12일 이사회에서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같은 심사결과를 승인, 수상자를 확정지었다.

학술상을 받게 되는 丁교수는 1956년 서울대 치대 졸업, 지난 61년 서울치대에 시간강사로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치과약리학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면서 1백15여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학계에 발표했으며 최근 10여년 동안에는 골조직에 대한 연구와 신경화학분야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왔다.



●정동균 교수



●김성조氏

한편 金성조씨는 지난 2월 연세치대에서 「치주낭대의 세균 내독소분포에 대한 연구」란 논문을 제출, 박사학위를 받았다.

兩수상자의 약력은 다음과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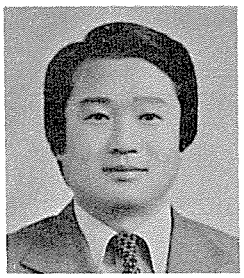
●정동균 교수

1956년-서울치대졸업
1966년-의학박사학위취득
1979~81, 83~85, 87~89년-대한구강생물학회회장 역임
1982~84년-치협학술부회장
1988~89년-제14차 아태치과회의 조직위원장
현 : 서울치대 치과약리학교실 주임교수

●김성조氏

1981年-연세치대졸업
1981~84년-同치대, 인턴, 레지던트 수료
1990년-치의학박사학위 취득
현재-부산치대 조교수

◎ 대한치과보철학회 1990년도 학술대회 및 총회 성료



〈회장 최부병교수〉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최부병 교수)의 1990년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부산의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에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첫날은 대학원의 논문발표(26연제), 보철학 해외연수자 발표(7연제)에 이어 특강으로 스위스 베른대학 치주과장인 Dr.Hans Graf의 "수복치료시 치주적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와 미국 UCLA 치대 Dr.John Beumer교수의 UCLA abutment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그밖에 포스터 발표(4연제), 테이블클리닉 발표(5연제)가 있었고 기자재 전시도 있었다.

이어 총회에서는 1990년도 회무보고 및 1991년도 사업계획과 44,624,048원에 달하는 예산안의 통과가 있었다.

한편 둘째날에는 John Beumer교수의 Implant에 관한 연수회가 성황리에 진행된바 있다. 다음은 Beumer교수의 특강 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UCLA abutment for Osseointegrated Implant"

UCLA abutment는 부분 무치악에서 심미성 증진과 부족한 막간거리의 해결 및 임플랜트 angulation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었다. 즉 악간거리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인 abutment 이용시 심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점막을 통과하는(trans mucesal) abutment cylinder로서, 직접 임플랜트에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게한다.

지금까지 UCLA implant team에서는 부분무치악 및 완전무치악의 환자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때 여러개의 임플랜트을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 단일 치아의 수복, overlay denture의 tissue bar 그리고 안면 보철물제작시에도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결과들을 임상증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齒協, 自律指導員 敎育 爲해 지침서 配布

齒協은 전국 4백14명의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을 위한 의료기관「자율지도지침서」를 배포하고 각 市·道支部에서 해당 자율지도원에게 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줄것을 당부했다.

齒協은 당초 자율지도원 보수교육과 관련, 각 시도지부에 순방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했으나 지난 1일 제3회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자율지도원이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돼 있어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각지부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자율지도 지침자료를 마련, 각시도에 보내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齒協의 의료단체자율지도위원회(위원장·金一京)는 각시도에 보낸「의료기관자율지도지침에 관련하여」를 통해 지난 4월 보사부에서 지시한 자율지도지침 내용과 4천6백71개 대상 치과의원중 3백77개 의원에 1, 2차시정을 보낸 상반기 자율지도 실적을 알리면서「자율지도원이 혈연, 지연, 학연등의 사적인 이유로 자율지도를 게을리한다면 또다시 관주도의 감시감독을 일일이 받게된다」고 주지시켰다.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성료

대기협은 지난 8일 서울 63빌딩에서 제26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文一현회장을 신임회장에 유임시켰다.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득용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文회장의 개회사와 치협윤흥렬회장의 축사에 이어 내빈소개와 공로패및 감사패수여가 있었다.

계속된 총회에서는 전회의록을 인준하고 90년도 회무및 결산보고를 각위원회별로 통과시키는 한편 감사단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 임원개선에 들어가 회장에 단독입후보한 文一씨를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유임시켰으며 부회장 선출에 있어서는 주화옥·윤정근(유임), 조동환(신임)씨를 선출하고 의장단과 감사단은 전원 유임됐다.

한편 9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추진, 회비납부독려, 보수교육평점조정, 기공요금 현실화 추진, 치과기보활성화, 기자재 개발등을 확정짓고 1억4천2백여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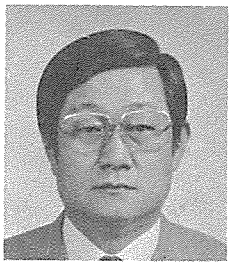
기타 안건에 있어서는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대한구강병리학회 정기총회 성료

대한구강병리학회(회장 趙畿鎬)는 지난 12월 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한 바 있다.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올해의 결산보고와 90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한뒤 임원개선에 들어가 새로운 9대 회장에 현 趙畿鎬 회장을 재 추대하는 등 구강병리학회의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趙 畿 鎬 會長〉

◎ 대한치과교합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尹昌根회장 유임



〈회장 윤창근 박사〉

대한치과교합학회(회장 윤병근)은 지난 15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전 미국 남가주치대 김성오 박사와 박영철 연세치대 교수, 일본임상치과 임프란트 카운실 회장인 나오끼니시 하마박사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나오끼니시하마회장이 발표한 특강의 제목은 『Occlusion of Implants in Edentulous Taws』이다. 또한 동학회는 2,000여만원의 새해 예산을 원안데로 통과시키고 尹昌根현 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부회장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키로 결의했다.

CHOI'S DENTAL LAB

崔鍊煥치과기공소

서울·종로구 숭인동 1081

923-6671 · 923-2998